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族文字出版专项资金资助项目

몽골족

蒙古族

Měnggǔzú

편자 두얼버타이

역자 림금산



토녕멘족출판사
외국어교학과 연구출판사

© 林锦山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蒙古族: 朝鲜文 / 杜尔伯台编; 林锦山译.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14. 9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 王泉根主编)
ISBN 978-7-5497-0851-2

I. ①蒙… II. ①杜… ②林… III. ①蒙古族—民族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K281.2-4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4)第215977号

蒙古族

MENGGUZU

出版发行者: 辽宁民族出版社

地 址: 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 110003

印刷者: 沈阳奇兴彩色广告印刷有限公司

幅面尺寸: 180mm×240mm

印 张: 5

字 数: 40千字

印 数: 1-1500

出版时间: 2014年9月第1版

印刷时间: 2014年9月第1次印刷

责任编辑: 张学林

封面设计: 杜 江

责任校对: 李 京

标准书号: ISBN 978-7-5497-0851-2

定 价: 18.00元

法律顾问: 陈 光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址: www.lnmzchs.com

淘宝网店: <http://lnmz2013.taobao.com>

举报电话: 024-23284336

邮购电话: 024-23284335

联系电话: 024-23284340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ㄱ-ㄴ 순)

곽우파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즈다링(이 족)

샌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자족)

전산천

정 아 (회 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 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짱 족)

왕해연(창 족)

심고전문가(ㄱ-ㄴ 순)

김여빈(회 족)

송 전(몽골족)

수 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뭇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좡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좡족, 요족, 바이족, 투자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창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양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통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녜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쌍반나 타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샤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짝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톨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 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목 록

제1장 몽골족의 역사와 개황

- 몽골족 각 부락 기원에 관한 전설 /9
- 취리투머터와 백조부인 /11
- 화살 다섯개로 자식을 훈계한 이야기 /13
- 한 시대의 군주 칭키스칸 /15

제2장 몽골족의 민간신앙

- 천신에 관한 전설 /25
- 어르허이머르건이 해를 쏘아떨구다 /27
- 호우버커타이와 내이지튀인이 법술을 겨루다 /29
- 칸허허이산에 제사지내고 병을 고친 이야기 /33
- 인컨상사만에 관한 전설 /35

제3장 몽골족의 생활풍습

- 몽골족의 유목생활방식 /55
- 몽골족의 음식습관과 례의 /57
- 베스만에 관한 이야기 /59

제4장 몽골족의 민간문학과 예술

영웅 장거얼에 관한 이야기 /63

마두금에 깃든 전설 /65

늑원지야에 관한 이야기 /71

제5장 몽골족의 전통체육

칭키스칸의 준마 두필 /73

일전지지에 관한 이야기 /79

참고문헌



제1장 몽골족의 역사와 개황

몽골족의 발상지는 얼군강(额尔古纳河)류역이었다. 후에 점차 서쪽으로 천이하여 지금의 위난하(斡难河), 커루룬하(克鲁伦河), 투라하(土拉河)의 상류인 칸터산(肯特山)일대까지 이르렀다. 13세기초, 몽골부족의 수령인 칭키스칸(成吉思汗)은 대사막남북의 각 부락을 통일시켜 몽골칸국(汗国)을 건립하였다. 우리 나라 경내의 몽골족은 주요하게 내몽골자치구에 분포되어있고 그밖에는 신강, 청해, 감숙, 료녕, 길림, 흑룡강 등 지역에 분포되어있다. 2000년의 전국인구보편조사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 몽골족의 인구는 581.39만명이다.

몽골족의 선조들은 몽골고원 유목민족 홍망성쇠의 교체와 증원 농경문명이 상호작용하는 진척에서 동북쪽으로부터 서쪽, 남쪽 몽골고원의 중심지역으로 천이하는 과정을 거치였다. 본 민족의 험난한 발전력사와 관련해 몽골족민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몽골족 각 부락 기원에 관한 전설

전하는데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3,000여년전, 북방의 몽골부락과 한 돌궐부락간에 충돌이 생겨 전쟁이 일어났는데 몽골부락이 참패를 당해 두명의 남자와 두명의 여자만 살아남아 깊은 산속으로 피난하였다.

그들이 숨은 곳은 인적이 드물고 사면은 험준한 산봉우리와 무성한 삼림이었다. 오직 한갈래의 좁은 오솔길만 바깥세상과 통할수 있었다. 이곳을 “어얼구네쿤(额尔古涅昆)”이라고 불렀다. “어얼구네”란 험준하다는 뜻이고 “쿤”이란 산비탈이라는 뜻이다. 도망쳐나온 2남 2녀는 서로 배필을 무어 두 가정을 이루었다. 한집은 성씨가 네구스(涅古思)였고 다른 한집은 성씨가 치옌(乞颜)이었다. 그들은 이곳에 정착하여 자손을 번성시켰다.

세월이 흘러 이곳은 땅이 좁고 인구가 밀집한 곳으로 변했으며 옛날의 좁은 오솔길마저 막혀버렸다. 발전을 위하여 그들은 이곳을 벗어날 길을 찾기로 하였다.

어느날, 그들은 옛날에 철을 제련할 때 쓰던 낡은 철가마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70장의 소가죽으로 일곱개의 풍구를 만들어 철을 제련하는 방법으로 철벽을 뚫어 외계로 통하는 한갈래 길을 열어놓았다. 그들은 이 길을 통해 초원으로 천이하기 시작하여 후엔 많은 몽골부락으로 발전하였다.



약 8세기경에 몽골부락의 선조들은 위난하의 발원지인 부얼한산지(不儿罕山地)로 왔다. 이곳은 유명한 “창랑백록(苍狼白鹿)” 선조설과 “삼하지원(三河之源)” 발상설이 탄생한 곳이다. “창랑백록”의 선조들은 20여대를 내려오면서 많은 몽골족부락을 형성하였다.

다음 이야기는 부리아터(布利亚特) 몽골인들속에서 류전되고있는 백조토텐의 신화인데 산생된 시기는 아마도 부제씨족사회인듯싶다. 전하는데 의하면 이야기속에 나오는 열한명의 아들은 후에 휘리(霍里)부족의 열한명 아버지 선조가 되었다고 한다.

휘리투머터와 백조부인

전하는데 의하면 휘리투머터(霍里土默特)는 장가를 들지 않은 청년이었다. 하루는 그가 바이칼(贝加尔)호수가에서 산책을 하다가 동쪽으로부터 아홉마리의 백조가 날아와 호수가에 내려앉는것을 보았다. 아홉마리의 백조는 깃털옷을 벗고 아홉명의 선녀가 되어 물속으로 들어가 미역을 감고 수영을 하였다.

휘리투머터는 몰래 깃털옷을 한벌 감추어놓고 숨어서 지켜보았다. 미역을 다 감은 선녀들중 팔선녀는 깃털옷을 찾아입고 다시 백조로 변하여 날아갔지만 한 선녀만은 깃털옷을 찾지 못하여 날아가지 못하고 휘리투머터의 안해로 남게 되었다.

백조부인은 휘리투머터에게 열한명의 아들을 낳아주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였다. 하지만 휘리투머터는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후에도 백조부인은 휘리투머터에게 여러번 청을 들어 깃털옷을 돌려줄것을 애걸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드디어 어느날 남편의 무방비한 틈을 타서 깃털옷을 찾아입은 그녀는 즉시 백조로 변신하여 창문을 열고 훨훨 날아갔다.

어쩔수 없게 된 휘리투머터는 안해에게 떠나기전에 열한명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것을 요구하였다. 하여 백조부인은 열한명의 아들에게 각각 후부더(呼布德), 가라주더(嘎拉珠德), 휘와차이(霍瓦柴), 하러빈(哈勒宾), 바투나이(巴图乃), 휘따이(霍岱), 후시더(呼希德), 차간(查干), 싸라이더(莎莱德), 씨덩구더(色登古德), 하얼가나(哈尔嘎那)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 부자가 세세대대 안락할것을 축복해주고는 날개를 치며 동북쪽을 향해 훨훨 날아가버렸다. ([몽골국] 다·치인쉬 더나무 편: 《몽골민간문학정화집》)



《몽골비사(蒙古秘史)》는 13세기전기(前期) 몽골궁전작자가 신화전설과 문자 기록에 근거하여 저술한 한부의 대몽골국발흥사(崛起史)이다. 이 책은 칭기스칸의 제22대 선조로부터 쓰기 시작하여 위거다이한(斡歌歹罕) 12년까지(1240년) 몽골민족 오백여년 흥망성쇠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전문은 운문과 산문으로 섞여 쓰여졌는데 중국 나아가 세계 사학사, 문학사에서도 독특한 지위를 차지한다. 다음은 《몽골비사》에 기록된 전설이다.

화살 다섯개로 자식을 훈계한 이야기

몽골 제11대 녀선조의 이름은 아란훤아(阿蘭豁阿)이다. 그녀는 뉘뻬메메간(朵奔蔑儿干)에게 시집을 가서 두 아들인 베러구너타이(别勒古讷台)와 부구너타이(不古讷台)를 낳았다. 뉘뻬메얼간이 세상을 떠난후 그녀는 또 뿌후터타지(不忽合塔吉)와 뿌허투싸러즈(不合秃撒勒只), 버뽀차얼멍허허이(孛端察儿蒙舍黑) 세 아들을 낳았다. 이 세 아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후 낳았기에 큰아들과 둘째아들은 은근히 뉘공론을 하면서 세 동생은 어머니와 머슴인 마아리허이·버야웬다이(马阿里黑·伯牙兀歹) 사이에서 생긴것이라고 의심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란훤아는 이런 의론들은 부족의 단결과 발전에 매우 불리하다는것을 깨닫고 다섯 아들을 불러놓고 매개인에게 화살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꺾어보라고 하였다. 다섯 아들은 힘을 그닥 들이지 않고 화살을 꺾어버렸다. 아란훤아는 또 화살 다섯개를 한데 묶은후 아들들더러 번갈아가며 꺾어보라고 하였다. 결과 그 누구도 꺾지 못하였다.

그리고나서 아란훤아는 큰아들과 둘째아들에게 세 동생이 태어난 경과를 이야기하였다. “매일 저녁이 되면 황백색피부의 한 사람이 창문과 문틈으로 흘러드는 빛을 따라 몽골포안으로 들어와서는 나의 배를 어루만지곤 하였는데 그때 몽골포안에 흘러든 빛이 나의 배속으로 스며들어 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단다. 그런데 너희 두 형제가 어떻게 감히 세 동생의 출생에 대하여 왈가왈부할수 있는거냐! 그들은 하늘이 내려준 자식일진대 너희들은 어떻게 그들을 속인과 비교한단말이냐!” 아란훤아는 다섯 아들에게 “너희들은 모두 내가 낳은 아들이다. 너희들은 한데 묶은 화살처럼 일치하게 단결하고 동심일체가 되여야 한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것이다.”라고 훈시를 주었다.

후에 다섯 형제는 각기 다섯가지 성씨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중의 버뽀차얼(孛端察儿)이 치옌·버얼즈진(乞颜·勃儿只斤)씨의 선조가 되었다. 칭기스칸이 바로 이 부족의 후예이다.



몽골족 하면 사람들은 자연히 칭키스칸(1162—1227)을 떠올리게 된다. 그는 시원한 영향력과 영원한 매력을 갖고있는 역사인물이다. 칭키스칸과 그의 자손들은 절반의 유라시아내륙을 정복하고 역사상에서 제일 큰 륑상제국을 창건하였는바 이로하여 세계 정치와 문화의 지도가 개변되였다. 몽골족으로 말하면 칭키스칸은 각 부족의 장기적인 전쟁을 결속짓고 초원을 통일하였으며 몽골민족을 뭉치게 하였고 몽골인들을 력사의 무대어로 올려세운 민족영웅이다.

치옌(乞顔)씨는 몽골시조의 직계이다. 제21대인 허뿌러칸(合不勒汗)시기에 이르러 치옌부족은 몽골 각 부족가운데서의 왕권지위를 확립하였다. 그 후예로서 치옌·주얼치(乞顔·主儿乞)씨, 치옌·버얼즈진(乞顔·勃儿只斤)씨 등 가족이 있다. 기원 1162년, 치옌·버얼즈진씨 족장 예쑤까이(也速该)네 집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여났다. 이름을 테무진(铁木真)이라고 달았는데 그가 바로 칭키스칸이다. 아래의 력사이야기는 《몽골비사》에서 따온것이다.

한 시대의 군주 칭키스칸

그해, 마침 복수전에 참가한 예쑤까이·바아투얼(也速该·把阿秃儿, “바아투얼”은 “영웅”이라는 뜻이다.)이 타타얼(塔塔儿)부족의 테무진·우거(铁木真·兀格), 휘리·부화(豁里·不花) 등 사람들을 포로하여 돌아올 때 마침 그의 안해 허어룬(诃额仑)부인이 위난하(斡难河)기슭의 데리원·버러다허이(迭里温·孛勒答黑)라는 지방에서 칭키스칸을 낳았다.

아이가 바로 테무진·우거를 포로해온 때에 태여났기에 이름을 테무진이라고 지었다. 테무진은 태여날 때 오른손에 원석형모양의 피덩어리를 쥐고있었다.

허어룬부인은 남편 예쑤까이에게 테무진, 허싸얼(合撒儿), 허츠원(合赤温), 테무거(帖木格) 네 아들과 한명의 딸 테무룬(帖木仑)을 낳아주었다.

테무진이 아홉살때,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외삼촌 워러후너티런(斡勒忽讷惕人)을 찾아 혼사이야기를 하러 갔다. 가는 도중에 처커처얼(扯克彻儿)산과 츠후얼구(赤忽儿古)산일대에 이르러 웅지츠다이씨(翁吉剌歹氏)사람인 더췌찬(德薛禅)을 만났다.

더췌찬이 “예쑤까이사돈님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묻자 예쑤까이는 “워러후너티런이 사는 곳으로 아들의 혼사이야기를 하러 갑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더췌찬이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은 그야말로 눈에 불이 일고 얼굴에 빛이 나는 아이로군요! 예수까이사돈님, 었저녁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바이하이칭(白海靑, 흰 매) 한마리가 해와 달을 잡고 내 손에 내려와 앉았소이다. 해와 달은 원래 사람들이 멀리서만 바라볼수 있는것인데 꿈에서는 바이하이칭이 해와 달을 잡고 내 손에 내려앉았단말이웨다. 나는 이 꿈이 무슨 길조인지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아들을 데리고 이곳에 온것을 보고 답안을 찾았소이다! 원래 그 꿈은 신령님께서 나에게 당신들이 올것을 예고한것이였습니다.”

더췌찬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웅지러티에는 예로부터 미녀들이 많소이다. 우리 고장에서는 아들들은 태어나면 제 고장을 지키고 딸들은 태어나면 타고장으로 시집을 보내지요. 예수까이사돈님, 나에게 작은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으로 가서 선을 보는것이 어떻겠습니까?” 말을 마친 그는 예수까이의 손을 잡고 자기집으로 이끌었다.

예수까이가 더췌찬의 집에 이르러 보니 그의 딸은 과연 용모가 아름다왔다. 더췌찬의 딸인 버얼테(李兒帖)는 테무진보다 한살이 많아 금년에 마침 10살이였다. 예수까이는 버얼테가 미음에 들어 이튿날에 더췌찬에게 혼사이야기를 꺼냈다. 예수까이의 뜻을 알아챈 더췌찬이 말했다. “비록 여러번의 청혼끝에 승낙해야 값이 있어보이고 첫마디에 승낙하면 가벼워보이겠지만 딸아이가 이만큼 커서 출가할 때가 되었으니 내 딸을 당신의 아들에게 허락해주겠소이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을 우리 집에 두고 가십시오.” 예수까이가 말했다. “아들을 두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개를 무서워하기에 개한테 놀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을 마친 예수까이는 타고온 말을 혼수로 더췌찬에게 넘기고 아들도 남겨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후날 예수까이가 죽은후 테무진일가는 가족의 제사활동에서 다른 귀족들의 배척을 받았다. 타이츠웬티(泰亦赤元惕)형제는 무정하게 허어룬모자를 낳은 병영에 버려두고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지 않았다.

현능한 허어룬부인은 띠를 맨 두루마기를 입고 워난하기슭을 바쁘게 오르내리며 들나물을 캐고 열매들을 주어와 어렵게 아들 딸들을 길렀다. 어머니의 부지런한 양육하에 허어룬부인의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효심이 있고 모든 면에서 뛰여났다. 그들은 자주 강가에 나가 고기를 잡았는데 잡아온 고기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